



엄肰한 고양이 어덜... 배우 박민영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영화 '고양이:죽음을 보는 두 개의 눈'의 제작보고회에서 고양이와 포토타임을 갖던 중 드레스가 고양이 발톱에 걸려 흘려내리면서 당황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타 온라인

산다라박 “와썹! 춤 출 준비 됐나요?”



2NE1의 산다라박이 팬들을 위해 신곡 안무를 깜짝 공개했다. 산다라박은 16일 미투데이를 통해 “와썹?! 올 여름 그녀들이 온다! ‘제일 잘 나가, 제제제일 잘나가!’의 정열적인 안무! 다들 따라 출 준비됐어? 어허! 조금만 힛트 줄게요! 내가 제일 잘나간다 생각하고 취야 되요! 제일 잘나가는 안무동작 1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곧이어 산다라박은 두 장의 사진을 잇달아 공개하며 “제일 잘 나가는 안무동작 2, 3탄! 두둥! 제일 신나게! 다음 주에 뮤직비디오 보고 이 동작들이 어떤 동작인지 한 번 찾아내 봐요! 그리고 올 여름 뜨겁게 한 번 취봅시다!”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2NE1은 24일 신곡 ‘제일 잘 나가’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애견인’ 고영욱 “애견 사료 모델 됐어요”



애견인으로 유명한 가수 고영욱(@goyoungwook)이 트위터에 코믹한 애견 사료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고영욱은 16일 트위터에 “대형마트 애견 코너에 가면 이렇게 내 사진이 있는 애견 사료가 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 된 애견 사료 사진 속에는 고영욱이 강아지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정한 애견인으로 인정한다’ ‘표정이 톱모델 뽀뽀한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타 가라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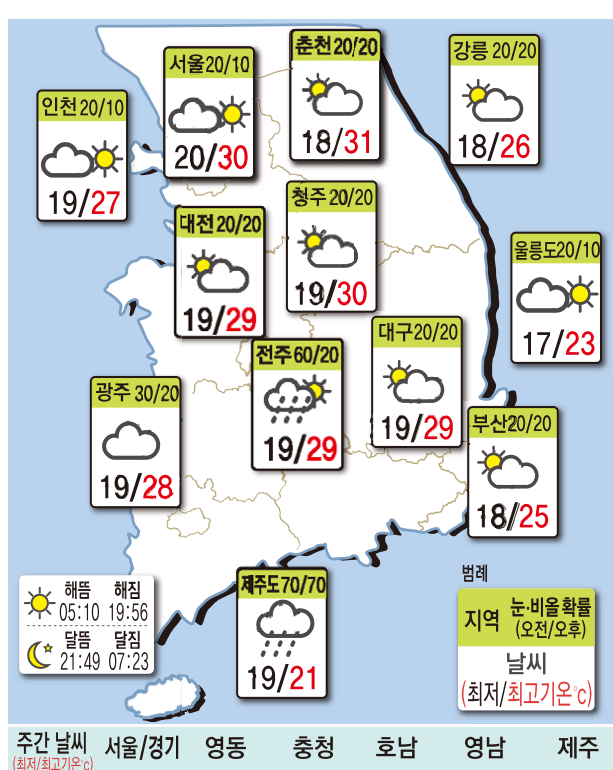
배우 차인표 “딸들에게 입양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줬다.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8일 MBC 라디오 표준 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입양한 딸에 대한 애정을 밝히며.

가수 이은미 “22년 동안 가수로 활동 해오며 중도에 포기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다. 500번, 1000번의 연습에도 포기하지 않는 권리세의 근성을 높이 산다.”

KBS Prime 인터뷰 토크쇼 ‘이금희의 특별한 만남’ 녹화에 참여해 MBC ‘위대한 탄생’에서 자신의 멘티였던 권리세를 칭찬하며.

오늘의 날씨



19일(일)	20/31	19/32	18/31	20/28	18/23	19/22
20일(월)	21/31	19/31	19/30	20/27	17/25	19/24
21일(화)	20/30	19/31	18/29	20/28	17/27	19/25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발행인 송대근
편집인 최병호
편집국장 이성훈
광고국장 이숙영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 1
2006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정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한재석·박솔미 열애 인정

“4월 열애설 후 사랑이 싹 났다”

“결혼 전제 맞지만 아직은...”

‘열애설 이후 진짜 사랑이 시작?’
최근 연예계에 핑크빛 로맨스가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다.

배우 한재석(38)과 박솔미(33)가 최근 연인으로 사랑을 키우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지난 해 3월 시작한 KBS 1T V 드라마 ‘거상 김만덕’에서 호흡을 맞춘 것이 계기가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이미 4월 한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당시 한재석과 박솔미 모두 연인 사이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사랑을 강력히 부인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양측은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 좋은 선후배 사이에서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사이로 발전해 사랑의 감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박솔미 소속사 다봄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드라마 ‘거상 김만덕’을 통해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 4월 열애설이 났을 때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런데 평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재석

박솔미

두 사람이 열애설이 난 후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전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재석이나 박솔미 모두 흥이가 짙한 나이여서 이번 교제를 계기로 두 사람이 곧 결혼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재석의 소속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결혼을 얘기할 만큼 오랜 시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재석은 현재 가을 개봉 예정인 ‘히트’를 촬영 중이며, 8월 탕웨이, 장백지, 임지령과 호흡을 맞춘 중국 영화 ‘다이나믹 엔젤’의 개봉도 앞두고 있다. 박솔미는 ‘거상 김만덕’ 이후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드라마 ‘미스 리플리’에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의상을 소화 중인 이다해.

사진제공 | MBC

이다해 “유혹 위해 한회당 10벌쯤이야”

‘미스 리플리’ 의상 패션쇼 뽐쳐

팜파탈로 변신한 이다해가 안방극장에서 매혹 패션쇼를 펼치고 있다.

이다해는 MBC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극본 김선영·연출 최아섭)의 여주인공. 그는 드라마에서 회당 100여 장면에 달하는 출연 분량과 여력과 성녀를 오가는 캐릭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출연 분량도 압도적으로 많고, 캐릭터도 극과 극을 오가다 보니 매혹 드라마에서 이다해의 의상은 패션쇼 컬렉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다.

‘미스 리플리’에서 이다해는 성공을 위해 김승우와 박우현을 이용하는 이야기를

만들며 과감한 의상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어깨를 드러낸 톱 미니원피스와 가슴과 허리라인을 강조한 섹시한 의상이 이다해가 택한 주요 디자인이다. 출연 장면이 많아 한 회 당 소화하는 의상만 10벌이 넘는다. 이들은 모두 대본을 받은 직후 이다해가 직접 극 중 상황에 맞춰 선택한 옷들이다.

이다해 소속사 DBM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드라마 초반 일본 술집에서 일하는 장면을 찍을 당시 입은 화려한 의상과 빨간 가발들은 직업여성들의 옷을 전문으로 파는 동대문 상점을 찾아가 구입할 정도로 신경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트위터 @madeinharry

송윤아·김정은=여자 김태원?

‘코갯텔’ ‘기적의...’서 자상한 멘토

배우 송윤아와 김정은, 두 ‘누나 멘토’가 경쟁이 치열한 서바이벌 오디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은 MBC ‘위대한 탄생’에서 독설이 아닌 진심이 묻어나는 심사과 리더십으로 멘티들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의 청춘합창단의 지휘자로 발탁되며 따뜻한 카리스마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그 뒤를 이어 현재 방송 중인 케이블·위성 채널 tvN ‘코리아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 송윤아와 24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SBS ‘기적의 오디션’ 김정은이 따뜻한 감성을 앞세운 멘토로 ‘여자 김태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코리아 갓 탤런트’의 송윤아는 도전자에게 감동 받은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딱



송윤아



김정은

한 사연을 가진 도전자를 보고는 “안아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는 등 인간미가 넘치는 심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송윤아는 제작발표회에서 “내가 도전자에게 받은 감동을 솔직하게 심사하고 싶다”며 심사방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은 방송 전부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얻기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겠다”고 선언하면서 따뜻함이 묻어나는 심사평을 예고했다.

김민정 기자

백지영 ‘삼성그룹’ 심사?

사내 오디션 심사위원 참여

가수 백지영(사진)이 멘토로 변신했다. 백지영은 ‘직장인 스타’를 뽑는 ‘슈퍼스타 S’에서 멘토 및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슈퍼스타 S’는 화제의 프로그램 ‘슈퍼스타 K’와 ‘위대한 탄생’을 혼합한 형태로, 삼성그룹이 실시한 사내 오디션이다.

비록 사내 오디션이지만 20만 명이 넘는 삼성그룹 내의 전 계열사 직원들이 총출동해 오디션을 봤다. 심사위원 라인업도 화려하다. 백지영을 비롯해 가수 김현철, 윤상, 인기 작곡가 유영석 등 내로라하는 스타들



백지영

이 ‘직장인 스타’를 뽑는다. 백지영 소속사 더블유에스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백지영은 예선부터 최종심사까지 참여해 꼼꼼한 심사를 펼쳤다. 또 최근에는 철저한 심사를 걸쳐 멘티 6명을 뽑아 2주 동안 훈련시켜 최종본선에 진출시켰다. 이 관계자는 “8집 활동을 하면서 두 달 정도 참여한 행사였다”며 “사내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방송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참가자들이 많아 흥미롭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 @mangoostar